

걱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걱정과 근심은 필요 없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의 욕심은 아닐까 생각 하게 된다.

며칠 전 아침 커피와 빵을 오랜만에 직접 만들어 아래층 패밀리 룸에서 TV를 보며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가다가 마지막 계단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잘못 짚어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한 손에 빵 그릇은 그대로였는데 오른 손에 있던 커피의 반이 크게 흔들려 카펫에 쏟아지고 말았다. 그것을 닦느라 한 참을 고생하는 바람에 나머지 커피도 모두 식어 버리고 말았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몇 개월 전에도 있었다. 냉동실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큰 마켓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박스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사다리 마지막 부분을 제대로 밟지 않아 뒤로 나동그라졌던 일이었다. 2분이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냉동 칸에서 그것도 반팔로 들어갔다가 정신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이었다.

두 번에 걸쳐 이러한 일을 겪다 보니 막연한 걱정이 시작되었다. 내가 왜 이럴까? 혹시 눈이 잘 안 보이는가? 아니면 나머지 계단을 생각하지 못하는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험한 생각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고 더 깊은 걱정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만일”.... 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고, 내가 조심하지 않고 덜렁댔기 때문이다. 아니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예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저것도 아니라면 약해지는 육신이 보내는 “조심”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내가 하고 있던 걱정과 근심은 그보다 더 무겁고 험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해쳐 나가야 하는 근심이 앞을 가리고 말았다. 나는 영원히 건강하고 청년과 같아야 한다는 욕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도 결국에는 나이와 세월을 타고 가야하는 것인데 나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고 육신의 시계를 주셨는데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며 맞추어 살지 않고 나만은 거룩하고 청결하고 영원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다가 결국에는 근심에 빠져 현실을 볼 수도 없게 된다면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저럴 때도 있다는 것을 시간이라는 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 육신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년 때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가 하면 중년과 노인이 되면서 새롭게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더욱 깊숙이 빠져 들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12절) 라고 하시며 걷는 늬어나 속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더욱 새로워진다고 약속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따분하고 지루할 수 없다. 늘 새로움으로 행복하기 때문이다. 괜한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 만 바라보며 살 때에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